

충남논단 Ⅲ

공주 숙모전에서 조선시대 시각장애인을 만나다

민정희 _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2004년 어느 날로 기억된다. 맹학교 행정실이라고 하면서 차분한 목소리의 여성분이 전화를 하여 한국사개론 강의를 요청하였다. 이 즈음 대학 시간강사였던 나는 조선시대 무속의 존재양상, 무속에 대한 유학자들의 인식, 유교사회를 지향하는 조선정부의 무속정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나아가 조선시대 다양한 무당의 호칭과 종류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문헌의 바다에 폭 빠져 있었다.

특히 원고를 쓰면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맹인무당’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이해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 각가지 궁금함이 있었던 차에 맹학교에서의 강의요청은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영상자료 활용이 제약되었기 때문에 더욱 정성을 다해 강의 초록을 작성해서 학교로 보내면 점자로 된 강의록이 학생들에게 배포되어 어려움 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쉬는 시간에는 시각 장애에 대한 궁금함을 조심스럽게 질문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학생들은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삶에 대해 친절하면서도 밝은 표정으로 설명해주었다. 비록 그들과의 관계가 학문적 호기심이나 혹시라도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는 측은지심에서 출발했을 수도 있겠지만, 만남을 거듭할수록 그들에게 조금씩 동화되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

다고 생각된다. 어느덧 10여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학생들의 진지했던 표정과 깨끗한 미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2016년도 충남 도정은 여성, 소수자 등의 인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다원화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 우리는 흔히 역사 속에서도 현명한 군주나 위대한 학자, 전쟁 영웅, 충신과 간신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만이 부각된다. 하물며 신체나 정신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1년 UN총회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장애인의 해' 기념사업으로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을 개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즈음에 매스컴에는 장애인 관련 각종 행사를 소개하며, 장애인 복지 관련 전문가 칼럼도 단골로 등장한다. 마음속의 편견을 하루빨리 깨자는 좋은 취지일 것이다.

우리 충남의 역사 속에도 몇 백년 동안 시각장애인을 모셔놓고 제사지내는 곳이 있다. 충남 공주시 계룡산 자락의 동학사 경내에 자리한 숙모전(肅慕殿,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67호)이다. 흔히 이곳은 단종 임금 내외와 사육신을 비롯한 많은 충신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공주 숙모전처럼 비슷한 유적이 강원도 영월군의 단종릉 배식단사이다. 이곳에서는 매년 한식때 단종을 위해 죽음을 초개처럼 던진 안평대군·금성대군과 같은 종친과 성삼문·박팽년 등의 충신, 환관과 궁녀, 노비, 내은덕(內隱德)·덕비(德非)·용안(龍眼) 등의 무녀(巫女), 나갈두(羅紆豆)·지화(池和) 등의 맹인(盲人)을 모시고 제향을 지낸다.

단종 임금을 배향하고 있는 숙모전에 조선초기 시각장애인 지화(池和)가 제향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평상시에 숙모전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다. 제향 공간이기 때문에 대부분 문이 잠겨 있다가 1년에 두 번씩 활짝 열린다. 춘향대제(春享大祭)가 열리는 음력 3월 15일은 조선시대 비운의 천재 매월당 김시습이 17세에 죽은 단종의 혼을 불러 처음 제사를 지냈고, 동향대제(冬享大祭)가 열리는 음력 10월 24일은 단종이 유배지인 영월 청령포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장애인의 날 다음날인 4월 21일에 춘향대제를 지냈고, 11월 23일에 동향대제를 지낸다.

춘향대제가 열리는 아침 숙모전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제향을 지내는 날이라 날씨가 화창하면 좋으려면 아침부터 봄비가 대지를 적신다. 기나긴 봄 가뭄을 해갈하는 단비라 뭐라 타박할 수도 없다. 오히려 감사할 일이 아닌가! 숙모전으로 가는 길에 나무들은 봄의 생명을 한껏 머금고 조금씩 푸른색 옷을 갈아입고, 벚나무가 한바탕 피고 진 다음에 노루귀 등 다양한 야생화가 자태를 뽐낸다.

동학사 일주문을 지나 조금 오르다 보면 웬지 절에는 어울리지 않는 홍살문이 방문객을 먼저 맞이한다. 흔히 궁궐이나 관아, 향교 등의 입구에 세우는 것이 홍살문인데, 하필 절에 홍살문을 세운 것일까? 그 이유는 충청의 명산 계룡산이 품고 있는 동학사 경내에 숙모전 뿐만 아니라 고려말 조선초 성리학의 기초를 세운 유학자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 선생을 제사지내는 삼은각(三隱閣), 신라 눌지왕때 왜국에 잡혀간 왕의 아우 미사흔을 몰래 구출하고 타국에서 절명한 박제상을 추모하는 동계사(東雞祠)가 자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학사와 숙모전 일대는 불교와 유교의 공존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나 할까! 사람이든, 종교이든 나와 다른 남을 배려하고 인정하는 모습은 모두 아름다운 것 같다. 홍살문의 낮설음이 낮익은 모습으로 다가올 때 세상은 더욱 살맛나는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숲과 계곡, 그리고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와 함께 어느덧 숙모전에 도착하였다. 행사를 위해 숙모전 인제문 앞에는 차일이 쳐있고 비가 오는 가운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답소를 나눈다.

제향은 오전 10시에 동학사 대웅전에서 불교식 축원제로 시작된다. 동학사 주지와 승려는 ‘○○○영가’라고 봉안 대상자 한명 한명을 정성껏 부르며 축원한다. 법당 안에는 머리에 유건을 쓰고, 도포를 갖춘 유림들이 앉아 있다.

간간히 들려오는 스님의 축원 속에는 충남 서산 출신으로 국보 제228호 천상열차분야지도각서석을 제작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류방택, 충절의 화신으로 대표되는 매죽헌 성삼문과 취금헌 박팽년 등의 이름도 들린다. 뿐만 아니라 내은덕(內隱德), 덕비(德非), 용안(龍眼), 나갈두(羅芻豆), 지화(池和) 등의 낮선 이름도 불린다.

숙모전에 280여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고 하니 큰 관심이 없다면 어쩌면 당연할지 모른다. 여기에 모셔져 있는 인물은 매죽헌 선생처럼 고향이 충남 홍성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꼭 우리 지역 출신의 인물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랜 시간 이 지역의 유림들과 배향 인물 후손들이 모여 제사를 지낸 것 자체가 우리의 역사인 셈이다. 동학사 스님의 축원을 들으면서 숙모전이 단순한 전각이 아니라 조선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엮어낸 인생 파노라마가 숨어있는 인간극장처럼 느껴진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동학사 대웅전에서 불교식으로 축원하는 모습〉



〈불교식 축원제에 참여한 유림〉



〈불교식 축원문을 읽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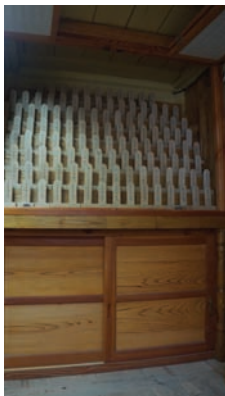
〈숙모전 제물 진설 모습〉

불교식 축원제가 끝나자 유림들이 하나둘 대웅전을 빠져 나와 담장을 두고 있는 숙모전으로 자리를 옮긴다. 사단법인 숙모회가 주관하는 유교식 제례가 시작되기 전, 그동안 사진으로만 보았던 숙모전을 살펴보기 위해 오른쪽 계단을 통해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건물인 동무(東廡)와 그 마주한 건물인 서무(西廡)를 가로질러 차일이 쳐있어 엄숙한 분위기가 맴돈다. 정면에는 단종 임금 내외의 위패가 모셔진 숙모전이 보인다.

잠시 건물의 배치를 살핀 후에 한쪽만 열려 있는 문을 통해 각각 6칸 규모의 동무와 서무의 내부를 살펴보았다. 내부에는 기다란 계 선반형태로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 그 위에 배향인물의 신주가 모셔져 있는 주독이 놓여 있다. 주독 앞에는 술잔, 꽃감, 포 등의 제물이 가지런히 진설되어 있다. 제단의 가운데 아래에는 향상(香床)과 모사그릇이 놓여 있다.



〈제물 진설 모습〉



〈동무 별단의 모습〉



〈지화 신위〉

동무에는 안평대군과 금성대군을 비롯하여 절재 김종서, 매월당 김시습 등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서무에는 단종의 장인인 송현수를 비롯한 박팽년의 아버지 박중립,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 등이 모셔져 있다. 그리고 동무와 서무의 각각 맨 마지막 칸에 살짝 열려있는 문을 열어보니 그 곳에는 100여개의 조그만 위패가 8단으로 천장까지 빼곡하게 모셔져 있다.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비록 위패이기는 하지만 드디어 역사속의 인물과 마주하는 순간이다. 너무나 작은 크기에 작은 글씨라 처음부터 신위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동무에서 상하좌우로 시선을 옮기며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다가 오매불망했던 지화의 이름을 찾았다. 그리고 서무에서 용안, 내은덕, 덕비, 나갈두 등의 이름도 확인하였다.

종친을 비롯한 관료들의 신주에는 제물이 각각 진설되어 있는 반면에 100여개의 위패에는 별도의 제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제물도 진설되지 않아 의아해하고 있을 즈음 제관으로부터 꾸지람이 날아온다. 조심스럽게 다니려고 했지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성껏 제사를 모시려는 분들에게는 분명 불청객임에 틀림없다. 연거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재문 밖으로 나와서 제향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잠시 자리를 서성이고 있는데, 인재문 서쪽 한 칸에 놓인 2개의 상이 눈에 들어온다. 상 위에는 커다란 제기(祭器)에 대추, 밤, 꽃감, 호두 등이 섞여 수북히 올려져 있고, 다른 제기에는 명태포, 육포 등이 가지런히 놓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운데를 흰 종이로 묶어 놓았다. 사진을 찍고 제관에게 여쭙보니 제사에 올리는 것이고, 아직 술이 올려져 있지 않으니

나중에 사진을 찍으라고만 말씀한다.

이윽고 제향 시작을 알리는 안내에 따라 제관일행과 참례자들이 숙모전으로 입장한다. 숙모전에서 집사자의 홀기에 따라 엄숙하고 정연하게 의례가 진행되고 동무와 서무에서 제향이 시작될 때 가장 끝 칸으로 자리를 옮겼다.



〈초헌례 모습〉



〈주독을 벗기는 모습〉



〈분향하는 모습〉



〈인재문 앞에 놓인 제물〉

위패의 주인공들은 환관, 궁녀, 노비 등으로 자신의 맡은 소임을 충실히 하고 초개같이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다. 물론 지금의 입장에서 살아 있을 때의 신분 차이가 적어도 죽어서는 평등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당대에 역사의 패배자들이 후일 재평가를 통해 자신이 모셨던 주군과 함께 그

옆자리에서 이렇게라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다행이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본다.



〈동무 별단에 놓인 제물〉

지화(池和)는 조선조 태종과 세종, 그리고 단종 시기에 시각장애라는 신체적 한계를 극복한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과 조선후기 실학의 비조(鼻祖)로 평가받는 반계 유형원(潘溪 柳馨遠, 1622~1673)의 『반계수록』에도 그 이름이 보일 정도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 그는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예지하는 점복(占卜) 능력이 뛰어났다.

조선시대에도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각장애의 경우 시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기관(官官)의 보상’에 따라 오히려 청각이 발달하여 음악연주에 뛰어난 기량을 보인다고 한다. 조선정부는 이들을 위해 관현맹(管絃盲) 제도를 두었다. 관현맹은 전악서, 장악원 등의 음악기관에 소속되었다. 그렇지만 국상(國喪)이 나면 일정 기간 음악 연주를 중단하였기에 악기연주만으로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음악연주는 인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문호가 열려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들은 점복의 기술을 학습하여 점복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사람들은 비장애인들에게 없는 ‘제3의 눈’인 심안(心眼)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조선사회는 고려시대의 제도를 본받아 점복 등을 관장하는 국가 기관이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점복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 임금이 궁궐로 불러 점복을 칠 정도로 일상생활에 만연했던 것이 사실이다.

단편적이지만 현존하는 자료는 통해서 지화의 삶에 대해 재구성해본다. 그는 몇 살때인지 알 수 없지만 이미 젊은 나이에 태종에게 재능을 인정받아 어명(御命)을 수행하였다. 태종 17년(1417) 9월 2일 왕실 혼례와 관련해서 처음 역사에 등장하였다. 당시 왕실 혼례는 배필이 될 만한 집에 사람을 보내서 혼인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하였다. 태종은 이미 자신과 사돈관계에 있는 지춘천군사(知春川郡事) 이속(李續)의 집에 지화를 보내 부마로 삼을 총각의 사주팔자를 계산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지화는 이속에게 아들의 사주를 물었고, 이속은 궁인(宮人)의 딸과의 연혼(連婚)을 거부하였다. 태종은 지화의 보고에 불손하다는 이유로 이속을 투옥시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왕실에는 혼인 후보자를 궐내에 모아 놓고 적격자를 뽑는 간택(揀擇)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한다.

지화는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명을 수행하기 위해 당연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비록 투옥사건으로 결말이 났지만, 지화는 어명을 충실히 완수하였다. 스스로 어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자긍심은 어떠하였을까? 그리고 주변의 관료나 그와 교유했던 사람들은 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였을까? 현실적으로 임금도 그의 능력을 인정할진데, 얼마나 많은 권세가들이 그에게 문복(問卜)을 했을까? 그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경제적 위상은 쉽게 짐작이 된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부엉이를 효조(梟鳥)라고 하여 매우 불길한 새로 인식하였다. 이 효(梟)자는 목 잘라 내걸 효와 같은 글자이다. 궁궐 근처에서 부엉이가 울면 왕은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승려나 맹인을 불러 독경(讀經)을 하여 재앙을 쫓고 복을 기원하였다.

세종 16년(1434) 12월에는 부엉이가 내성과 근정전에서 울어서 해괴제(解怪祭)를 지내고, 관청의 노복들을 시켜 부엉이를 잡게 하였다. 이때 지화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12월 16일 좌의정 맹사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검교한성소윤(檢校漢城少尹) 지화(池和)와 선사(禪師) 신생(信生)에게 벼슬을 제수하고자 의견을 물었다.

맹사성은 “고려왕조에서도 검교의 벼슬을 내렸는데 지금은 이미 혁파되었고, 맹인에게 실직을 제수하게 되면 책임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공로가 있다면 쌀만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세종은 명예직이 아닌 실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판단을 유보하였다. 이를 후에 지화와 신생에게 각각 쌀과 콩 10석을 하사하였다.

당시 조정에서는 관료제 정비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에게 실직을 주지 않았다. 지화는 관료들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몇 차례에 걸쳐 세종에게 건의하였다. 세종 18년(1436) 10월 5일 영의정 황희는 전례에 따라 관직을 받아야 하고, 내시부에만 검교 직책이 있기 때문에 내시검직을 주어 사옹원 사직의 일을 맡기고 정4품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의정 노한 이하의 관원들도 황희와 같은 의견이었고, 다만 관품을 정3품

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세종은 지화에게 “중훈검교첨지내시부사”로 삼아 사옹원 사직의 일을 맡도록 하였다. 그리고 관직과 관품에 맞는 사모와 띠를 하사하였다.

그런데 세종의 결정에 대해 관료들은 불만이 많았다. 같은 날 사간원에서는 지화에게 관직을 파면하고 돈이나 포 등의 현물로 포상하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모와 품대차림으로 자신들과 동일하게 관료로 대접받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상급자로서의 우대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더 컸던 것 같다. 물론 이같은 주장이 수용되지는 않았다.

이후에도 지화는 국가의 점치는 일과 왕실의 혼인에 직접 관여하였다. 그의 이름이 다시 역사의 전면에 부상한 것은 세종 26년(1444) 12월초에 임금은 내시를 지화의 집으로 보내어 점을 치게 하였다. 실록에는 점을 친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이 없지만, 앞뒤 문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당시 세종의 다섯 번째 아들인 광평대군이 창진을 앓고 있었다. 지화는 이미 퇴궐하여 집에서 술을 마셨고 대궐하여 인사불성으로 점술을 거부하였다. 이에 격분한 세종은 의금부에 명하여 지화를 잡아다가 문초하였다. 결국 12월 7일에 광평대군 이여가 사망하였으며, 세종은 3일 동안 조회를 금지한 이후, 11일에 지화에게 불경죄를 적용하여 결국 회령부로 귀양 보냈다.

함경도라는 낯선 곳에서 귀양생활은 어떠하였을까? 지화는 어명을 수행하고 국가의 중대한 대소사에 점복을 했던 관리였다. 조선시대 특히 함경도는 무속신앙이 성행하던 곳이다. 아마도 유배지이든 인근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복(問卜)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후대의 일이지만, 광해군대에 장순명은 유배를 가서도 임금이 신하를 보내 점복을 칠 정도였다. 장순명은 유배에서 풀려나기 위해 속죄하는 뜻으로 은(銀)을 바치기도 하였다.

지화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귀양살이에서 풀려났다. 본래 유배형은 종신형이기 때문에 한번 유배를 가게 되면 죽을 때까지 고향에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다. 나라의 특별한 경사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이 발생할 경우, 국왕의 사면령이 내려 유배 인사들이 유배지에게 석방되는 일이 많았다.

그는 해배된 후 단종 1년 10월 14일에 다시금 역사의 전면에 부상하였다. 당시에 지화는 안평대군과 그의 수하인 이현로와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던 것 같다. 지화는 안평대군이 임금이 될 팔자라고 하여 안평대군과 그 문객들의 정치적 야심을 정당화시켜 주었다. 이를 계기로 수양대군에게 참수되었다. 지화의 부인 막금은 세조 2년(1456) 9월 7일 파평군 윤암에게 하사되어 노비생활을 하다가 성종 3년(1472) 5월 24일 풀려나게 되었다.

지화는 비록 시각 장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인물이다. 정치적 격변속에 피화 당했지만, 조선후기 단종 복위와 충신 현창과 맞물려 역사 속에 영원히 살아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면에서 숙모전은 무궁무진한 스토리텔링의 보고가 아닐까한다. ◀